

No.20170308-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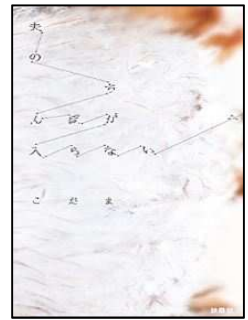
제목: 남편의 물건이 안 들어갑니다

저자: 코다마

페이지수: 195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1월 18일



<내용소개>

어느 부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모습과 행복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설

서점에 이런 제목의 책이 진열되어있으면 놀라서 다시 살펴보지 않을까? 실제로 일본 독자 중에는 제목 때문에 구입해서 읽었다는 경우가 많다. 흥미 본위의 외설적이거나 비유로 쓴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남편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고로 일반적인 섹스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14년 어느 동인지에 수록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에세이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돈금 없지만, 남편의 물건이 들어가지 않는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소설의 첫 문장이다. 여자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된다. 대학에 입학하며 자취를 하게 된 주인공은, 같은 건물에 살고 같은 학교 재학 중인 남자와 사귀게 된다. 자유분방한 성향의 그와 처음 자게 되었을 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의 성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로 이 원인 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서로 좋아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의문이었다. 비록 육체적인 결합은 중도에서 멈췄으나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기에 계속 교제한다. 결국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대로, 언젠가는 되겠지 하며 결혼까지 한다. 이들은 그 때만 해도 앞으로 다가올 시련들을 예상하지 못한다.

행복한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일을 하며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을 겪은 주인공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인 궁지에 몰리고 부부 사이도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러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한 남성을 만나 밤을 보낸다. 게다가 20대 후반이 되자 이번에는 양가에서 왜 아이를 갖지 않냐는 은근한 압박이 가해진다. 부부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임신과 출산은 불가능하기에,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다.

소설은 성과 가족관계, 일 때문에 힘들어하던 부부가 극복해 온 싸움의 기록 같은 것이다. 화자는 그 과정을 건조하면서도 유머를 살려 풀어놓는다. 제목과 본문에 꾸준히 나오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부부는 성인 사회에 들어갈 수 없다. 제목에 굳이 미성숙해 보이는 속어를 쓴 것도 그 때문이다. 부부는 세상에서 당연하고 이상적으로 여기는 가족의 형태에도 들어갈 수 없다.

한 집에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채 살아가는 부부 관계를 '안심할 수 있고 청결한 삶'이라 표현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남매처럼, 식물처럼 살기로 택한 부부를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까? 행복은 타인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 줄 이야기다.

<저자소개>

코다마

주부. 2014년에 동인지 판매회 <문학 프리마>에 참가하였고 기고한 단편 <남편의 그것이 안 들어간다>가 큰 화제가 되었다. 2015년에 <문학 프리마>에서 배부한 블로그 서적 《소금으로 비벼라》는 이례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현재 《퀵 재팬》, 《주간 SPA》에서 연재 중이다. 단편 <남편의 그것이 안 들어간다>가 대폭 수정한 이 책이 첫 저서다.

No.20170308-002

제목: 당신은 왼손잡이

저자: 누카가 미오

페이지수: 317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0월 27일



<내용소개>

순수한 청춘의 짝사랑과 학원 미스터리가 절묘하게 결합된 연애소설

수많은 이야기에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기억상실증. 외부로부터 강한 물리적 충격을 받거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에야 겪기 어려운 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누구나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포 때문이다. 나에 대해 제일 잘 알아야 할 내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 놓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자아낸다.

이 소설의 주인공도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고2 남학생 '고야노 마사키'는 여름 방학 중,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가다가 차에 치여 다리 아래 호수로 추락한다. 다행히 목숨에 큰 지장은 없었으나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는다. 방학이 끝나고, 고야노는 예전처럼 등교하여 수업을 듣고 사진부 활동도 한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구들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같은 반 학생이자 사진부원인 '이코마 케이스케'와 '카스가 마도카' 덕분에 고야노도 점점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학교 축제를 앞두고 한창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다. 누군가 체육관 벽에 '7.6'이라는 숫자를 써놓은 것이다. 처음에는 다들 시시한 장난으로 여겼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학급 일지에, 교실 칠판에, 축제 공식 트위터에 '7.6'이라는 낙서가 연이어 등장한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쓴 것인지 밝혀지지 않지만 고야노는 혹시 자기를 향한 메시지일까 의심한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려줄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수수께끼를 추적하던 주인공은 여러 사람과 만나며 '기억을 잃기 전의 나'를 마주하게 되고 지금의 자신과 비교한다. 그리고 물음만이 남는다.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주인공의 기억상실증은 불운한 사고의 결과였지만,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상처 준다. 왼손잡이의 인구 비율과 LGBT의 인구 비율이 7.6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은 이미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이 숫자가 여기서도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낙서의 진짜 대상과 뜻, 영커버린 상황과 더불어 친구들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된 고야노는 후회와 괴로움, 놀라움에 사로잡힌다.

신인작가 누카가 미오는 2015년말 혜성같이 등장했으며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꾸준히

발표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작품은 미스터리 요소가 결합된 청춘 소설로, 그 나이에 걸맞은 순수함이 느껴진다. 단숨에 읽히는 문체가 몰입도를 더욱 높여주며 끝에는 예상치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누구도 행복해졌다고 확신할 수 없는데도 해피엔딩임은 분명하다. 독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남길 소설이다.

<목차소개>

1. 남자 고교생이 경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2. 너, 뭔가 나쁜 생각 하는 거 아니지? / 3. 연애도사 / 4. 누구나 비밀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법 / 5. 그는 어떤 기분으로 칠판을 보고 있던 걸까 / 6. 좋을 대로 쓰면 / 7. 죽으면 좋을 텐데 / 8. 그것을 기억했다면 애초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 9. 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다

<저자소개>

누카가 미오

1990 년 이바라키 현에서 태어났다. 소설가를 꿈꾸며 니혼대학 예술학부 문예학과에서 창작과 DTP 를 배웠다. 대학 졸업 후에는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다. 2015 년 <혼자 있는 아이>로 제 16 회 쇼가쿠칸 문고 소설상, 그 3 주 뒤에는 <옥상의 원도 노트>로 제 22 회 마쓰모토 세이초 상을 받았다. 이 2 권으로 2015 년 6 월 말 데뷔하며 화제가 되었다. 2015 년 11 월 간행된 <타스키메시>는 청소년 독서감상문 전국 콩쿠르 과제 도서 (고등학교 부문)에 선정되며 베스트 셀러에 올랐다. 최근작은 <안녕, 크림소다>다.

No.20170308-003

제목: 만화처럼 술술 읽히는 철학 입문

저자: 카게야마 카츠히데

페이지수: 336

장르: 철학, 교양

출간일: 2017년 01월 12일



<내용소개>

철학을 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조차, 철학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입문서

철학은 대단하지만 어려운 학문이며 돈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미지가 있다. 사람들이 선뜻 다가서기 힘든 대상인 이유는 간단하다. 답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 개인과 집단, 동물과 생물, 그것들을 아우르는 가치관과 우주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지만 도무지 정답이 없다.

주요 학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배우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익히기 위해서다. 저자는 일본 최고의 재수학원에서 인기 1위를 달리는 강사로, 이 타이틀에서 누구보다 쉽고, 재미 있고, 적절한 속도로 철학에 들어서는 길을 소개하고 있다.

본문은 서양 철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신화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던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서 시작됐다고 여긴 탈레스, 종교집단의 교조로서 숫자만이 인간의 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은 피타고라스, 문답법을 통해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선한 삶을 추구했던 소크라테스 등이 등장한다.

그 다음은 크리스티교 사상을 짚어본다. 신과 이웃사람을 사랑하라 가르친 예수와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 서양 사상의 근저에 있는 윤리관을 알아본다.

14~16세기 유럽의 서양근대철학 편에서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활자 인쇄 발명으로 성서 보급으로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와 종교개혁, 데카르트 및 베이컨을 비롯한 과학의 시작을 설명한다. 17세기 영국에서 시민혁명이 성공하자 그 영향을 받은 18세기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난다. 이성의 힘을 빌어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몽으로 정의했으며, 영국처럼 폭군을 끌어내리고 시민의 손으로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됐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독일에서는 관념주의 철학이 주를 이뤘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차례로 절대왕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칸트, 사회 내 대립이 국가가 발전하는 동력이라고 주장한 헤겔 등이 있다. 그 후에도 19세기 전반 영국에서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가, 19~20세기 유럽 전역에서는 키에르케르고와 니체 등을 앞세운 실존주의가 나타났다.

마지막 장에서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큰 관심을 끌었던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을 포함해 정신분석학을 소개했다. 각 항목마다 핵심만 뽑아 간결한 문장으로 잘 읽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철학과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다. '알고 싶다'는 욕구만 있다면 된다. 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전혀 상관없다. 이 책은 초심자도 철학을 재미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줄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철학이란 무엇인가

제 1장: 고대 그리스 철학

제 2장: 크리스토포 사상

제 3장: 서양 근대 철학

제 4장: 계몽 사상

제 5장: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

제 6장: 공리주의

제 7장: 실존주의

제 8장: 정신분석학

<저자소개>

카게야마 카츠히데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일본 최고의 대학 입시 재수학원 '요요기 제미날 학원'의 공민과 No1. 강사로 불린다. 윤리뿐 아니라 정치경제, 현대 사회도 맡고 있다. 경제학 어조와 정확한 판서, 재미 있는 내용 덕분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 저서로는 《다시 시작하는 경제사》, 《다시 시작하는 전후사》, 《카게야마 센터 윤리》, 《세계를 움직이는 종교와 사상을 2시간 만에 배운다》등이 있다.

No.20170308-004

제목: 오마에 겐이치의 IoT 혁명

저자: 오마에 겐이치

페이지수: 208

장르: IT, 비즈니스

출간일: 2016년 09월 13일



<내용소개>

엄청난 변혁을 초래할 IoT 시대, 세계의 기업과 비즈니스 현장의 대처를 분석·전망하다

지금까지의 IT기술은 별도의 기기를 통해 구현되었다. 컬러TV,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과 스마트폰,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을 펼칠 수 있는 게임기기 등등. 발전된 기술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했기에 IT기기=전자기기라는 인식도 생겨났다. 하지만 이제는 IoT다. 현재의 기술은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Internet of Everything으로 진화 중이다. 기존에는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사물과 이어지는 형태였다면, 아예 사물에 컴퓨터를 내장시켜 사물과 사물이 소통하게 하는(M2M, Machine to Machine)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냉장고가 식재료를 관리하고 다 쓴 품목은 자동 주문을 한다거나, 퇴근길 자동차가 예정 도착 시간을 계산해 집으로 보내면 미리 난방을 켜놓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타이틀은 일본의 경제석학 오마에 겐이치의 편저로, IoT 혁명에 대처하는 비즈니스와 업체의 전략을 분석하고 예측한다.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오마에 겐이치는 1장을 맡았다. IoT에 대한 개요를 차근차근 짚어보고 미국 GE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아마존의 '물류 로봇틱스' 등 한 발 앞서 대응 중인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IoT는 디바이스 기술/ 플랫폼 기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기술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총 시장 규모는 2016년 1.4조 달러에서 2020년 3조 달러로 커질 것으로 본다. IoT전략의 요체로서 Lean Startup, Open Innovation, Top Commitment를 들며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장은 일본 최초 전자메일 네트워크를 설립했던 무라이 준 교수가 다가올 미래상을 예측한다. 사물과 교통수단 및 TV, 3D프린터 등에 쓰이며 사회기반의 역할을 해낼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지멘스 사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시마다 타로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일본에게 주어진 과제를 분석한다. 에릭슨, 지멘스 오토모티브 등을 거쳐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Continental Corporation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베르너 괴슬러가 4장을 맡아 자동운전차량&고도의 교통시스템의 형태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어렵지 않은 말로 쉽게 설명하려 노력하였으며, 복잡한 내용은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해 시각화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과 후의 산업 체계가 다르듯, IoT 역시 큰 분기점이 될 것이다. IoT의 정체

를 확인하고 검증함과 동시에 여러 기업과 국가들은 그것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유용한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IoT전략의 요체 - 오마에 겐이치

제 2장: IoT로 미래는 이렇게 바뀐다 - 무라이 준

제 3장: 지멘스와 독일의 신 제조업 전략(인더스트리 4.0) - 시마다 타로

제 4장: 차의 자동주행과 고도 교통 시스템의 새로운 형태 - Werner Koestler

<저자소개>

오마에 겐이치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도쿄공업대학에서 석사,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히타치제작소, 맥킨지 앤드 컴퍼니를 거쳐 현재 (주)Business Breakthrough의 대표이사 사장 및 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저서는 《〈0에서 1〉의 발상 기술》, 《일본의 논점》시리즈, 《난문과답》, 《프로페셔널의 4가지 조건》 등 다수가 있다. 〈국경 없는 경제학과 지역국가론의 제창자다. 맥킨지 시절에는 월스트리트저널 지의 컨트리뷰트 에디터로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지에서는 국경이 희미해짐에 따른 기업의 국제화 문제와 새로운 지역국가 개념에 대해 논문을 계속 발표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는, 현대세계의 사상적 리더로서 미국에는 피터 드러커와 톰 피터스, 아시아에는 오마에 겐이치가 있다고 꼽기도 했다. 2005년 〈Thinkers50〉에서도 아시아인으로 유일하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05년, 《The Next Global Stage》가 Wharton School Publishing에서 출판되었고 발매 초기부터 호평을 얻어 13개 국가에서 번역 출간 및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경영 컨설턴트로서도 각국에서 활약하며 일본의 피폐한 정치 시스템 개혁과 진정한 생활자 주권 국가 실현을 위해 새로운 제안과 컨셉트를 계속 제안하고 있다. 경영과 경제에 관한 다수의 저서가 세계 각지에서 읽히고 있다.

No.20170308-005

제목: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을수록' 잘 된다

저자: 이토 마코토

페이지수: 207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2월 23일



<내용소개>

‘열심히 하지 않는 공부법’으로 원하던 결과를 얻는 비결을 공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2월 31일을 기해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이지만, 사시 공부는 널리 알려진 ‘어려운 공부’ 중 하나였다. 먹고 자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적어도 매일 10시간 이상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데에만 쓰는 사람들이 수도룩했다. 쉬거나 놀고 싶은 욕구를 이를 악물고 참으며 견딘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씩 하고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 또한 셀 수 없었다. 사시뿐 아니라 다른 시험공부도 이런 식이어서 오랫동안 앉아 있기를 장려한다. 당연히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 합격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학문에는 성패의 기준이 없지만, 수험은 ‘합격’이 최우선 목표다. 그렇다면 무작정 앉아있기만 하는 공부 방법이 시험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닐까? 모두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일본 도쿄대 재학 중에 당시 최단기로 합격했다는 저자는 이후 자기의 노하우를 살려 수험지도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열심히 하지 않을수록 공부가 잘 된다고 말한다. 공부 자체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를 악물고 죽기살기로 덤비지 말고 즐기려는 자세를 갖추라는 뜻이다.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사시공부로서 많은 양의 조문과 판례를 외워야 했지만, 이제는 지식을 활용하여 사고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변했다고 한다. 조문과 판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무리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공부란 원래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려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해 성장을 실감해 나가면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나서서 배우고 싶어진다. 공부를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일부를 이용해 숨겨진 본질을 찾아나서는 게임이라고 여기면 보다 재미 있게 접근할 수 있다.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구분해 공부 계획을 세우는 비결, 시간이 가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강력하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 뇌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기능을 최대한 살려 기억 용량을 늘리는 방법 등을 세세하게 설명한다.

본인이 겪은 사례는 물론, 수험을 지도하며 겪은 사례들이 적절히 등장하여 지루하지 않다. 마지막에는 주변의 일부터 ‘열심히 하지 않기’를 실천하는 팁과 수험생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조언을 건넨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괴로워서 안되며, 지엽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는 보유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점에 유의하며 '안간힘을 쓰지 않는' 공부를 시도해보자. 밝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활기 있게 공부하는 힌트가 담긴 책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공부>는 두근거리는 것이다 - <열심히 하기>에서 <열심히 하지 않기>로
- 제 2장: 무리하지 않아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비결 - <의욕>을 만드는 방법
- 제 3장: <하지 않을 것>을 정하면 편해진다 - <공부계획>을 세우는 방법
- 제 4장: 시간을 잊어버릴 만큼 집중력이 늘어난다 - <집중>하는 방법
- 제 5장: 스트레스 없이 뇌를 활용하는 공부법 - <기억>하는 방법
- 제 6장: 작은 것부터 <열심히 하지 않기>를 실천해보자 - <공부생활>을 잘 하는 방법

<저자소개>

이토 마코토

변호사, 호가쿠칸 법률사무소 소장, 이토학원 원장, 호가쿠칸 헌법연구소 소장. 1958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1981년에 도쿄대학 법학부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그 후, 수험지도를 시작하자마자 금세 인기강사가 되었으며 1995년에 <이토 마코토의 사법시험 학원(현: 이토학원)>을 열었다. <이토 메서드>이라 불리는 혁신적인 공부방법을 도입하여, 사법시험단기합격자 수 배출 실적 면에서 부동의 톱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다. <합격 후를 생각한다>는 독자적인 이념을 가진 <카리스마 원장>으로 열렬한 지지를 얻는 한편, <헌법의 전도사>로서 열정적으로 강연과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꿈을 이뤄주는 공부법》, 《생각하기 훈련》, 《이토 마코토의 시험대책강좌(전15권)》, 《헌법의 힘》, 《계속하는 힘》, 《아이의 머리를 좋게 만드는 공부법》, 《헌법문제》, 《깊이 생각하는 힘》등 다수가 있다.

No.20170308-006

제목: 10년 후, 당신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자: 후지하라 카즈히로

페이지수: 260

장르: 비즈니스,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2월 10일



<내용소개>

격변의 시대에 성인이 될 청소년들이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기술 발전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전체적인 사회상 또한 빠르게 변하는 중이다. 그래서 한 세대만 지나도 삶의 배경이 되는 지식이나 가치관의 세계에 큰 차이가 생겨난다. 그것들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한다. 지금의 30-40대를 기준으로, 부모들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로서 다사다난했던 시절에 청년기를 보내고 가장이 되었을 때에 IMF 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30~40대는 경기 호황의 막판에 태어나 IMF에 휘청대는 어른들을 목도하였으며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다. 그 아래세대는 인터넷이 이미 보편화 되었을 때 태어났다. 상향평준화 된 정보처리기술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 전 세대들과 기본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경기불황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늪에 빠진 청년층은 본받을 롤 모델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개혁실천가로 활약하며 다수의 중·고교의 교장을 맡아온 저자는 여기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인생모델이 통하지 않기 시작한지는 꽤 됐다. 소위 명문대를 졸업해도 회사에 정사원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대기업에 입사해도 평생 직장으로 여기는 사람은 적다. 결혼과 출산은 응당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문제로 변하고 있다. 현재 중고생들이 어른이 되는 2020년대 이후에는 그런 성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표준적인 인생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세계는 점점 넓어지고 있고 업무든 취미든 삶의 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해결하게 될 지 모른다. 기대·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AI가 단순 노동력은 물론 고차원의 전문 영역까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려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야말로 불확실함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나가기 위해 몸과 마음에 익혀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보를 편집하는 능력의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해 저자는 알기 쉽게 설명하며 독자들이 같이 생각하게끔 한다. 또한, 직장이나 클라이언트에게 고용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을 소개하고 훈련시키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90세 시대의 인생 계획을 가늠해본다. 30대까지는 무모한 시도도 해보며 경험이라는 자원으로 축적해야 한다. 세대를 넘어서는 여러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는 것은 소통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자기 긍정감을 채워줄 것이다.

곧 성인이 될 청소년들은 이전과는 다른 막막한 불안을 헤쳐나아가야 한다. 본문 마지막 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 희망을 안겨준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삶을 고민할 기회를 제공할 책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지금부터 10년 동안 세계는 격변한다
- 제 2장: 일이 줄어드는 시대에 몸에 익혀 뒤야할 것
- 제 3장: <놀이>와 <전략성>이 정보편집력의 열쇠다 된다
- 제 4장: <고용되는 능력>을 단련하는 방법
- 제 5장: 90년 수명 시대의 라이프 디자인
- 종장: 당신들이 일본의 미래를 개척할 존재라는 이유 10

<저자소개>

후지하라 카즈히로

교육개혁실천가. 나라시립이치조고등학교 교장. 1955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1978 년에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주식회사 리쿠르트에 입사하여 도쿄영업총괄부장, 신규사업담당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미디어팩토리의 창업에도 참여했다. 1993 년부터 유럽에 주재하였고 1996 년 동 사의 펠로우가 되었다. 2003 년부터 5 년간, 도내 의무교육의 첫 민간교장으로서 스기나미 구의 와다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했고 2008 년~2011 년에는 하시모토 오사카 부지사의 특별고문을 맡았다. 2014 년부터 사가현 다케오 시의 특별고문을 맡았다. 2016 년 나라시립이치조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인생의 교과서 [세상의 룰]》《인생의 교과서 [인간관계]》등 인생의 교과서 시리즈, 《35 세의 교과서》, 《언덕 위의 언덕》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닛케이 비즈니스》에서 8 년에 걸쳐 서평을 집필했고 1200 회의 강연회를 진행하며 20 만 명이 넘는 사람을 동원한 인기강사로서도 활동 중이다.

No.20170308-007

제목: 'BETTER'를 위한 집중력 수업

저자: 이시카와 요시키

페이지수: 156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2월 25일



<내용소개>

현대인의 집중력 유지 시간은 금붕어의 그것과 같다!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 멍한 상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1971년, 미국의 사회과학자이자 경영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긴 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이렇게 예언했다. “정보의 풍요는 주의력의 빈곤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현대인의 연속 집중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2000년 평균 연속 집중 시간은 12초였는데, 2015년에는 8초로 크게 줄었다. 금붕어가 평균 9초다. 지금 인간은 금붕어와 같거나 못한 집중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업무를 하다가 별 용건도 없이 메일을 수시로 체크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다. 집중력 부족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고자 한다. 보통 개인의 의지가 문제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기한이 가까워질 수록 집중력이 좋아졌다가 그 시일이 지나면 본래대로 돌아가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정신력 탕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안정된 집중력을 지니려면 그에 맞는 연습이 필요하다. 1장은 기본 중의 기본인 3가지 테크닉을 소개한다. 자기를 과신하지 말고 정신을 흐트러트리는 물건들은 멀리할 것, 마지못한 자세로 시작하지 말 것, 끝나는 시간을 정해둘 것이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해도 직접 실천해보는 것은 또 다르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테크닉의 효과와 예시를 알려주며, 멍한 정신상태로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돕는다. 위기감에서 비롯된 강한 스트레스와 단숨에 긴장이 풀어지는 단계로 구성된 '초 집중 상태'는 2장에서 소개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의욕과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3장은 초 집중 상태를 이루고 유지하는 방법을 다룬다. 뇌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이 책에서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다. 저자는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계속 만들어 시도할 것을 권하며, 어떤 작은 목표를 설정해야 할지 설명한다. 4장은 생각하는 과정을 정형화하는 단계다. 초 집중 상태가 되려면 '반복 가능하여 정형화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고민하며 정형화함으로써 생각하기 자체를 통해 초 집중 상태를 이룰 것이다. 마지막 5장은 집중력을 관리하며 질리거나 지치지 않고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활력 넘치는 삶을 살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보통'에서 '더 좋은 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집중력>이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한계치는 하루에 4시간인데, 이를 업무에 투자한다면 결과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중력을 향상 및 강화할 수 있는 힌트가 가득한 이 책을 참고해보자.

<목차소개>

- 제 1장: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 제 2장: 싫어하는 상사를 떠올리면 일이 진척된다?
- 제 3장: <작은 목표>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
- 제 4장: <생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형화한다
- 제 5장: 100세 시대에 일하는 방법

<저자소개>

이시카와 요시키

1981 년 히로시마 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 의학부 건강과학과(현: 건강종합과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공중위생대학원을 수료, 지치의과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하였다. 전문 분야는 예방의학, 행동과학, 기계창조학이다. 강연과 잡지, TV 출연 경력도 다수 있다. 저서로는 《지치지 않는 뇌를 만드는 생활습관》, 《친구 숫자가 수명을 결정한다》, 《최후의 다이어트》, 《No Rebound Diet》등이 있다.

No.20170308-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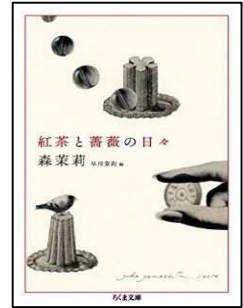
제목: 홍차와 장미의 나날 / 가난한 사치쟁이의 멋내기 수첩

저자: 모리 마리, 하야카와 마리(편집)

페이지수: 246, 285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6년 09월 07일, 2016년 12월 07일



<내용소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멋내기를 즐겼던 작가 '모리 마리'의 에세이를 새롭게 편집하다

작가 '모리 마리'의 부친 '모리 오가이'는 소설가·평론가·군요인으로 활약하며 19세기 후반 일본의 문학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초년에는 아버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지만 이후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두 번의 결혼과 이혼 후에는 아버지가 없는 친정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지낸다. 독립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했다. 오랫동안 무직이었고 아버지의 저작권이 만료되어 인세 수입도 끊긴다. 편집부에서 일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아버지의 모자》로 이름을 알린다. 이후 발표한 장편 소설이 미시마 유키오에게 격찬을 받으며 단숨에 작가로 인정받았고, 만년까지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어린 시절에 부족함 없이 자란 모리 마리는 돈이 없을 때도 맛있는 것을 먹고 꾸미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다고 한다. 집은 항상 지저분하고 생활력은 부족했다는 증언도 셀 수 없다. 그 대신 뛰어난 미각과 요리 솜씨, 독자적인 심미안을 갖고 있었고 그 재능을 작품들을 통해 맘껏 뽐냈다. 이번에 소개하는 《홍차와 장미의 나날》과 《가난한 사치쟁이의 멋내기 수첩》은 모리 마리가 발표했던 여러 작품 중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에세이를 편집자가 선정해 엮은 것이다.

《홍차와 장미의 나날》은 음식에 관한 모음이다. 맛있는 밥을 먹지 않으면 소설이 잘 안 써진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주머니에 넣어 가져다 준 천황의 과자, 너무나 좋아하는 시모키타자와 상점가의 레스토랑과 파리의 카페, 자신 있는 메뉴의 레시피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아버지와의 추억과 결혼 전후 시기 등 자기 삶의 면면을 솔직하게 밝힌다.

《가난한 사치쟁이의 멋내기 수첩》의 테마는 패션이다. 어릴 적 받은 독일제 아동복, 아버지에게 받은 결혼반지에 새겨진 문구, 파리에서 즐겨 찾았던 향수 가게와 백화점에 대한 회상, 자기만의 스타일링 스킬, 여러모로 충격과 영향을 받았던 패션 스타일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그녀의 미적 기준과 그것이 형성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어 흥미롭다.

그저 철없고 천진난만한 부잣집 아가씨 같으면서도 밉지 않다. 유쾌한 문체 속에 날카로운 자기 분석과 세상을 파악하는 뚜렷한 소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두 권의 책을 읽으면 왠지 배가 고 파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미의식에 대한 욕구가 같이 강해지는 기분이다. 모리 마리와

함께 잠시만이라도 사치를 즐겨보자.

<목차소개>

[홍차와 장미의 나날]

제 1장: 먹보

제 2장: 요리 자랑

제 3장: 추억의 맛

제 4장: 일상다반사

제 5장: 홍차와 장미의 나날

[가난한 사치쟁이의 멋내기 수첩]

제 1장: 어린 시절의 멋 부리기 - 마리의 양복, 양팡의 양복, 킨도의 양복

제 2장: 파리의 멋 부리기

제 3장: 반지·목걸이·향수·기호품

제 4장: 모리 마리 식의 멋내기 스킬

제 5장: 충격적인 패션 관찰

제 6장: 멋쟁이 스크랩 북

<저자소개>

모리 마리(원작)

(1903~1987) 군의관 겸 작가로 활동하며 나쓰메 소세키와 문호로 칭송 받은 모리 오가이의 장녀다. 1957년, 아버지를 동경하는 딸의 감정을 섬세한 문체로 그려낸 수필집 《아버지의 모자》로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 상을 받으며 50세가 넘어서야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연인들의 숲》, 《달콤한 꿀이 있는 방》 등의 저서가 있다.

하야카와 마리(편집)

작가 겸 편집자. 《스미레노 오토》의 발행인. 편집저서로는 모리 마리의 작품집 《가난한 사람의 사바랭》과 이와모토 소하쿠 작품집 《맹물 같은 이야기》, 저서 《모리 마리에게 심취함》 등이 있다

No.20170308-009

제목: 괴담, 5분간의 공포 - 아직, 있어...

저자: 나카무라 마사미

페이지수: 255

장르: 아동 소설

출간일: 2016년 12월 20일



<내용소개>

아동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짧은 기담 30편을 소개합니다.

밤 12시가 되면 학교 내 동상이 움직이거나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난다는 학교괴담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그런 것들은 유치하고 우습게 느껴질 테지만, 좀 더 일상적인 공간에서 실제 사건을 변용했을 법한 도시괴담을 들으면 여전히 오싹해집니다. 늦은 밤 처음 보는 남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알고 보니 살인범이었다거나, 도로나 동네 등 특정 장소에서 귀신이 자주 목격되는데 조사해보니 실제 사고가 났던 지점이라던가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각종 괴담의 나라 일본에서는 손등으로 박수를 치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살짝 소름이 돋기도 하고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공포 이야기를 찾아 다니는 것일까요?

이 책은 아동을 위한 괴담집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부족함 없는 이야기들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당 5분 이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길이입니다. 총 30편의 기이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누군가가 직접 겪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며 소개하는 형태로 시작됩니다. 시기나 장소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현실감을 더합니다. 호기심에 폐가에 들어갔다가 며칠 뒤에야 빠져 나온 아이, 사람이 죽어서 놀랄 만큼 싸게 나온 집에 들어갔다가 무언가에 홀린 듯 자살 시도를 한 여자,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곳에서 귀신이 되어 맴도는 남자, 산 속에서 단체로 이상한 존재를 목격한 친구들 등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배경이나 상황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잔인함 보다는 미스터리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딘가 서늘해지는 기운이 들 것입니다.

저자 나카무라 마사미는 예전부터 '실화 괴담'에 관심을 갖고 수집해 왔으며 '괴담사'라는 독특한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삭막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 혹은 상해·살해하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경우, 원한은커녕 처음 보는 사람을 갑자기 구타하거나 죽이는 경우, 과도한 괴롭힘으로 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자주 보도되는 편입니다. 저자는 이런 때일수록 기담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에 숨어 있는 생명의 존엄함과 소중함을 돌이켜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책임니다.

<목차소개>

사카모토 씨 / 헤어질 수 없어 / 저렴한 아파트 / 닭 / 유령이 나옵니다 등

<저자소개>

나카무라 마사미

홋카이도에서 태어났으며 얼마 안 되어 도쿄와 오키나와에서 살았다. 모친의 건강 문제로 초등학생 때 다시 고향인 홋카이도로 돌아왔다. 18세 무렵부터 몇 년간 디스코에서 직업DJ로 일했으며 이후 20년 가까이 자동차 전문 잡지 에디터로 근무했다. 직접 체험한 실화 괴담을 말하는 분야에서 선구적인 존재로서 현재 괴담사 '핑키 나카무라'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전국 각지의 괴담을 모은 <불안하고 기이한 야화>, 괴담을 통해 생명의 존엄함을 전하는 <도덕 괴담>을 열고 있다.

No.20170308-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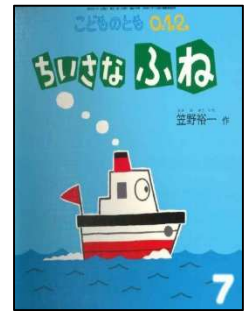
제목: 조그마한 배

저자: 가사노 유이치

페이지수: 2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1년 07월 01일



<내용소개>

바다 위를 나아가며 친구들을 만나는 조그마한 배의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배가 넓은 바다 위를 달립니다. '통- 통-' 소리를 내며 하늘 위를 날아가는 갈매기와 비슷한 속도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두웅- 두웅-'하고 웅장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나아가는 광경에 놀라기도 합니다. 바다 속에서 튀어 올랐다가 사라지는 돌고래랑 같이 통- 통- 뛰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크기의 배들을 만나 같이 바다 위를 신나게 달려나갑니다. 조그마한 배는 바다 위에서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와 같은 배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탈 것에 관심이 많을 3세 무렵의 아이에게 적합한 그림책입니다. 스토리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므로 그보다 어린 1,2세 유아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입니다. 자동차를 소개하는 그림책에 비해 배만 나오는 그림책은 적은 편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 것입니다. 단순화 하여 묘사한 배와 동물들이 귀엽게 표현되어 있으며, 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성어를 소리 내어 읽고 리듬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배들을 찬찬히 보며 어떤 종류의 선박일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조그마한 배를 통해, 아이들은 앞으로 새로운 곳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가사노 유이치

1956년 미야자키 현에서 태어났으며, 1980년 도쿄농업대학을 졸업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학생시절 여행 중 들른 보스턴 미술관에서 베아트릭스 포터 《피터 래빗 그림책》의 원화 및 스케치를 보고 그림책 제작을 하게 되었다. 단행본 《해님 반짝반짝》을 비롯해 <과학 친구>에 《손가락 놀이》(193호), 《다 같이 차 만들기》(398호), 《물놀이》(461호)등 작품을 수록했다.